



이건 정말 중요한 지표

Economist 안소은 02)6915-5657 ase331@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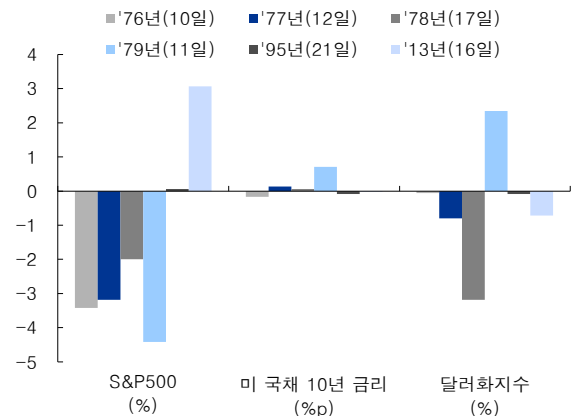
정용택 02)6915-5701 ytjeong0815@ibks.com

미국 섣다운, 불안하지만 괜찮다

Focus on Week

- 트럼프 정부의 3번째 연방정부 섣다운이 현실화됨. 트럼프와 민주당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와 정치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섣다운 기간이 과거 가장 길었던 21일을 넘어서 가능성이 있음. 이번 섣다운의 쟁점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의 주요 공약인 만큼 예산안에 그 비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계속될 것. 반면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1월부터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연방정부 폐쇄는 정치 불안으로 소비심리 악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하지만 과거 20번의 섣다운 시기를 되돌아 보면 기간에 상관 없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금융시장에서도 섣다운 기간 주가나 금리, 달러화의 방향은 엇갈린 모습을 보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권의 합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밖에 다른 변수의 영향이 혼재되기 때문. 연초 전례없이 긴 섣다운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이로 인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판단

과거 10일 이상 지속된 섣다운 시기, 금융시장 영향은 혼재됨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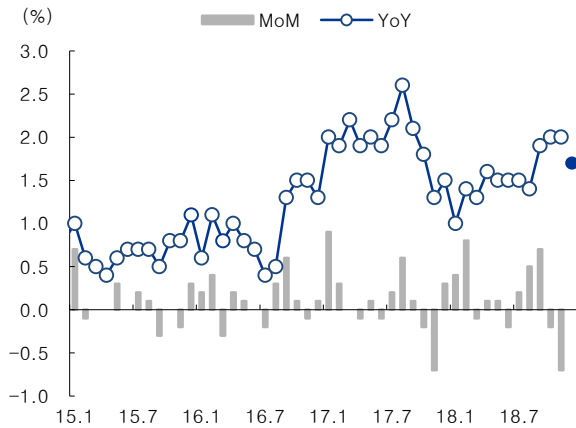
Weekly Preview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예상치	이전치	비고
12.31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0%	-0.7%	기온 하락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보합
	중국	12월	통계청 제조업 PMI	50.0	50.0	정부 부양책 기대로 추가 하락은 제한돼 기준점(50) 수준 유지할 것
1.1	한국	12월	수출 YoY	3.3%	4.5%	소평시즌 영향 소멸과 단가 상승 효과 악화로 증가율 하락 전망
	한국	12월	수입 YoY	4.9%	11.4%	국내 투자 부진과 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 약화 예상
	한국	12월	무역수지	50.0억달러	49.3억달러	수출입 증가율 하락에도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됐을 것
1.2	중국	12월	Caixin 제조업 PMI	50.2	50.2	무역분쟁 불확실성 지속에도 정부 부양책 기대로 보합권 예상
1.3	미국	12월	ADP 민간 고용	18.0만명	17.9만명	건조한 내수를 바탕으로 고용 증가 계속됐을 전망
	미국	12월	ISM 제조업지수	58.0	59.3	소평시즌 이후 신규주문 약화되면서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 예상
1.4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8%	2.0%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폭 추가로 축소될 전망
	미국	12월	비농업부문 고용	18.0만명	15.5만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 지속됐을 전망
	미국	12월	실업률	3.7%	3.7%	양적 고용 호조로 실업률은 50년래 최저 수준을 유지했을 것

* 한국 경제지표의 예상치는 당사 추정치이고, 여타 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

Chart of the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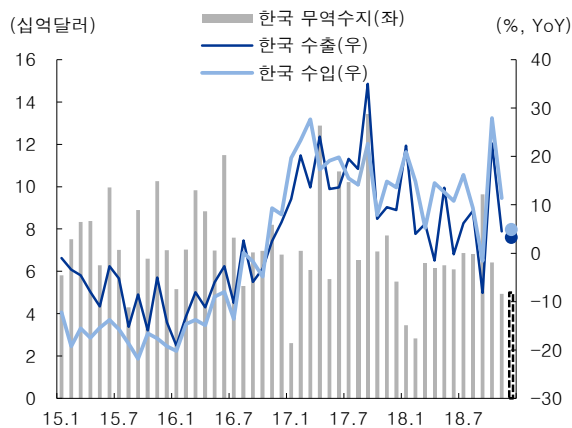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0%, YoY 1.7% 전망



자료: 통계청, IBK투자증권

- 1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변동 없이 보합 예상. 급격한 기온 하락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반등과 연말을 맞은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변동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반면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휘발유 및 관련 품목의 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상쇄될 것으로 예상
- 전년비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다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됨. 기저효과 소멸로 휘발유 가격의 전년비 상승률이 (-)로 전환됐으며, 전셋값 하락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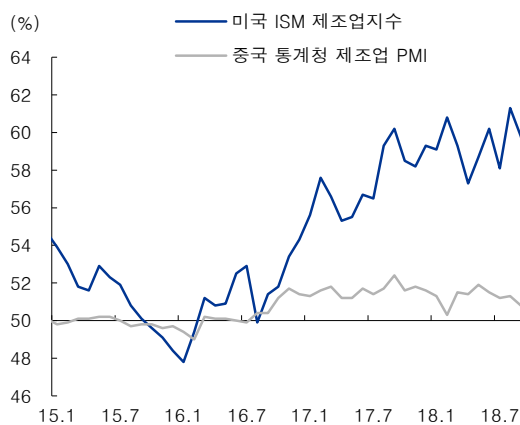
한국 12월 수출 YoY 3.3%, 수입 4.9%, 무역수지 50.0억달러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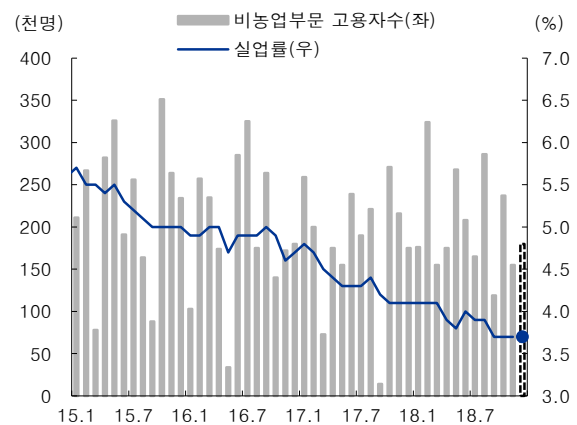
- 12월 수출입 증가율 모두 하락했을 전망
- 글로벌 제조업 경기는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이나, 연말 쇼핑시즌 효과 약화 및 지난해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 국제유가 및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단가 상승 효과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
- 수입의 경우에도, 국내 투자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효과 약화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했을 것
- 수출입 증가율은 하락했겠지만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했을 전망

12월 제조업 체감경기, 중국은 보합 미국은 하락 예상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 12월 고용시장, 양호한 흐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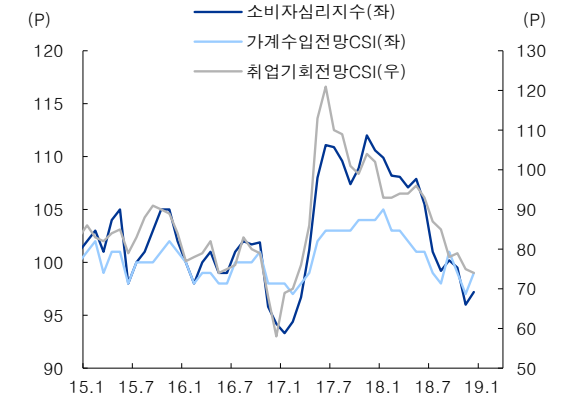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Weekly Review

- 12월 국내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100P)을 하회하고 있음. 헤드라인 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을 보면,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 항목이 상승한 반면 현재생활형편 항목은 하락함
- 특히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가계수입전망은 연초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선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헤드라인 산출에 들어가지 않는 하위 항목 중 임금수준전망이 상승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 가능. 다만 취업기회전망은 하락해,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올해 국내 경기 흐름을 좌우했던 고용시장은 내년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소비지출전망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가계소비는 고용과 임금 수준에 민감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투자확대 등 내년 정책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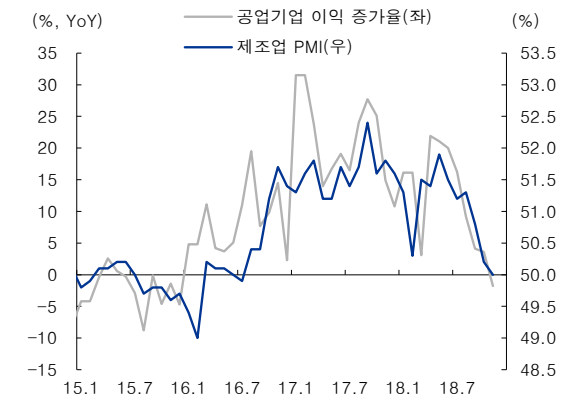
- 중국 공업기업 이익이 3년만에 전년 대비 감소 전환함. 이익 증가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제조업 PMI가 이미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기업 이익 둔화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공업생산 둔화와 판매 부진, 비용 상승이 종합적으로 이익 감소를 견인했음
- 광공업생산 등 여타 지표와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초 마-중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높은 불확실성 자체가 대내외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음. 다만 중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투자를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 체감경기와 기업 이익 지표의 둔화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예상

한국 소비심리, 소폭 반등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중국 공업기업 이익, 3년만에 (-) 전환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발표치	예상치	이전치	전기 대비 변동
12.21	미국	11월	개인소득 MoM	0.2%	0.3%	0.5%	▼
	미국	11월	개인소비 MoM	0.4%	0.3%	0.8%	▼
12.26	미국	10월	케이스샐러 20개도시 주택가격 MoM	0.41%	0.3%	0.73%	▼
12.27	중국	11월	공업기업 이익 YoY	-1.8%	-	3.6%	▼
	미국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0.3%	0.3%	0.2%	▲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	128.1	133.5	136.4	▼

* 한국 경제지표의 예상치는 당사 추정치이고, 여타 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